

홈오디오기술접목, 베릴리움 역동 특허 취득

포칼야심작 유토피아 BE 시리즈 공개

카오디오 유통업체 오디오 원이 지난달 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 판매 예정작인 포칼 유토피아 BE시리즈를 공개했다. 제품 출시를 앞두고 글로벌 투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포칼 측에서는 프랑스 본사 기술이사 기이 보네빌이 아시아 판매 담당 매니저 질 브른과 함께 직접 방한했고, 이 기회를 통해 국내 인스톨러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의 핵심내용은 유토피아 BE시리즈의 소개와 제품의 특징, 장착상의 유의점 등이었다. 아시아 지역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질 브른은 포칼 프랑스 본사의 위치와 공장 라인, 기술, 연구 포인트 등을 함께 소개했다.

포칼의 연구 포인트는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인데 1980년 듀얼 보이스 코일을 개발하고, 그 다음해 역동을 개발한 이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한가지 기술에 국한하지 않고, 디자인 기술을 통합적으로 개발 진행하고 있으며 사운드와 구조 등 여러 분야에 타제품과 차별화 되는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일부 중요한 과정은 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유토피아 BE시리즈에 포칼 특허인 베릴리움 역동 기술이 도입된 것은 홈 오디오 기술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

한 기술이사 기이 보네빌은 이 제품이 기본적으로 홈 오디오의 사운드를 생산해 내는데 카오디오에서도 최적의 인스톨 기술만 적용하면 홈 오디오에 가까운 사운드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유토피아 BE시리즈에 사용한 베릴리움의 특징과 출시 예정인 제품들의 간단한 특징들의 설명으로 세미나를 이어갔다. 이어 설명한 내용은 스피커에 적용된 W콘에 대한 설명과 각 제품의 이상적인 장착 방법이었다. 유토피아 BE 시리즈 중 5인치 서브우퍼의 경우 대시보드 상단에 장착하는 것이 전면 스테이지 구성에 가장 이상적이며, 트위터, 미드레인지는 양쪽 A필러에 미드베이스의 경우 프론트 도어에 장착하는 것이 최적의 사운드를 만들어 내는 비결이라고 기이 보네빌은 설명했다. 또한, 크로스블럭은 무려 4480가지 튜닝 컴비에이션 변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피커 개발자가 의도한 스피커의 사운드를 찾아주는 유닛이다. 특히, 포칼의 유토피아 시리즈 중 8인치 서브우퍼는 0.5cu.ft.의 작은 용적으로도 다이나믹하고 박진감 넘치는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후 5시경 세미나를 마치고 기이 보네빌은 '포칼은 지속적으로 고급 유닛에 대한 개발과 출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에 선보이게 될 유토피아 BE시리즈에 거는 기대가 크며 투자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 발 한 발 기술 진보는 계속된다

포칼 기술이사 기이보네빌

지난달 1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오디오 원 세미나에서 포칼의 야심작 유토피아 BE 시리즈가 첫 선을 보였다. 이날 방한한 기이보네빌(Guy Bonneville)씨는 프랑스 본사에서 기술 개발을 담당, 홈 오디오의 완벽한 사운드를 카오디오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본지는 기이보네빌씨를 만나 유토피아 BE 시리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새로운 파트너와의 한국 시장 공략 계획을 알아 보았다.





1 2월 1일 포칼의 신제품 유트피아 BE 시리즈 기술 및 장착 부분의 세미나 홍보 판매 담당자 질브렌치씨와 방한한 포칼 기술 이사 기이 보네빌씨가 직접 가져온 신제품의 하드 케이스를 펼쳐 보이고 있다. (좌부터 : 기이 보네빌씨, 질 브렌치씨)
 2 많은 인스톨러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진 세미나에서는 적극적인 질문공세가 이루어졌다. 기이 보네빌씨가 질문한 인스톨러에게 직접 친절한 설명을 해주는 모습 (좌부터 : 기이 보네빌씨, 통역 담당 설민수씨, 부산 S1 카 오디오 김태정씨)

한국 방문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늘 일 때문에 방문 하긴 하지만 올 때마다 한국이 친숙하게 느껴진다. 음식도 입에 잘 맞으며, 사람들도 친절할 곳이라고 생각한다. 프랑스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정서가 잘 맞는다. 이는 패션과 영화, 음식 등의 코드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다.

포칼 유토피아 BE 시리즈의 첫 선

포칼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단순히 기존에 것과 다르게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재와 기술, 개념을 도입하여 제품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는 것이다. 포칼 유토피아 BE 시리즈는 티타늄보다 100배 가량 비싼 베릴리움 소재를 채용해 제작한 스피커 유닛인데 혁신적인 소재와 기술을 적용한 제품 인만큼 투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술 노하우

포칼의 오래된 기술력은 홈 오디오로부터 나오고 있다. 카 오디오에 비해 조건이 좋은 홈 오디오는 카 오디오와 비교할 수 없는 사운드를 만들어 냈었다.

근본적으로 홈 오디오에서 소스를 얻어 발전하고 있는 포칼은 현재 자동차에서도 홈 오디오 부럽지 않은 사운드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는 단지 더 나은 기술개발을 위한 길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마니아가 홈 오디오에서 들을 수 있는 음장감과 퀄리티를 자동차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겨냥한 브랜드 전략

지금까지 마니아들과 인스톨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포칼은 보다 나은 기술을 향해 진보하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뒤편 마케팅으로 감각스럽게 소비자의 눈길을 끌며 변신을 꾀

하는 것은 제품과 자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대로 제품의 성능으로 소비자와 인스톨러에게 평가받기를 원한다. 일반적이지 않은 기술과 특별한 소재를 식별할 줄 아는 오토티아라면 충분히 성능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

새로운 파트너, 오디오 원

오디오 원의 이한림 대표와는 이미 10년 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였는데 이번 일을 통해 더 가까워 졌다. 오늘 정식으로 오디오 원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매우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 한국에서의 포칼 유통은 걱정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프랑스에서도 포칼 제품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술분야에 능통한 사람들이라 편리했는데 평소 이한림 대표 역시 기술적인 부분에 조예가 깊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만나게 되어 기쁘다.

카 오디오를 즐기는 법

나는 어린 시절부터 카 오디오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은 오토티아, 인스톨러와 함께 그 열정을 나누고 싶다. 좋아한다고 혼자 즐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카 오디오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서로 공유하는 것이 생명이다. 지금처럼 여러 나라를 돌면서 세미나를 다니는 일 역시 나의 열정을 분출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카 오디오를 함께 즐기기 위해서는 정보도 열정이든 공유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추후 일정

전 세계에 판매를 기획하고 있는 이번 유토피아 베릴리움 시리즈의 세미나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지만 이번 일정은 한국이 마지막이다.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프랑스로 돌아갈 예정이다. **CA**

글· 송희정 사진· 박수철